



헝가리

EU 가입으로 교역확대 효과 나타나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EU)에 가입한 헝가리는 25개 EU 회원국 간 '관세동맹 및 시장통합'이라는 EU 무역정책을 받아들인 결과, EU 회원국 간 교역은 자유화되었고 무역장벽은 크게 완화되었으며, 제3국과의 교역에서도 공통적인 EU 규정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EU 가입 이후 지난 1년 간 헝가리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고, 수출입 변화에 기초한 EU 가입의 실질

적인 효과를 점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04년 상품 수출입 실적, 증가세 지속

헝가리는 2001년 이후 3%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에도 투자 및 수출 증가를 바탕으로 3.7%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2003년 이후부터 상품 수출입 규모가 급격히 증대하면서 대외거래가 보다

〈표〉

헝가리 주요 경제지표

단위: 억 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f
경제성장률	3.8	3.5	3.0	3.9	3.7
산업생산증가율	3.6	2.8	6.4	8.3	7.0
경상수지	-32	-47	-76	-87	-91
상품수출액	311	348	435	545	670
(수출증가액)	(23)	(37)	(87)	(110)	(125)
(수출증가율)	(8.0)	(11.9)	(25.0)	(25.3)	(22.9)
상품수입액	333	369	468	574	705
(수입증가액)	(16)	(36)	(99)	(106)	(131)
(수입증가율)	(5.0)	(10.8)	(26.8)	(22.7)	(22.8)

자료: EIU, Country Report April 2005; Outlook for 2005-06.

활기를 띠고 있는 한편, 경상수지는 외채상환, 소득수지(외국기업의 과실송금 증가) 및 서비스수지 적자로 오히려 그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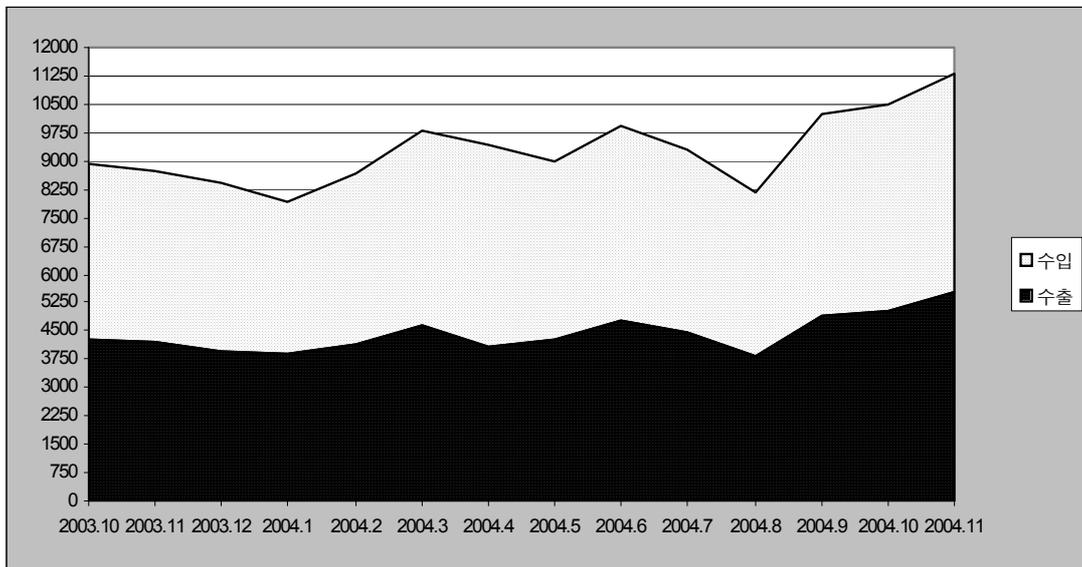
2003년 이후 산업생산증가율은 2002년의 2.8%에서 2003년 6.4%, 2004년 8.3%로 그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EIU에 따르면, 분기별 산업생산 증가율은 2004년 1/4분기 10.4%(전년 동기 대비), 2/4분기 10.5%, 3/4분기 5.9%를 기록하였다. 산업별로 총 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증가율을 비교한 헝가리 통계청(Central Statistical Office)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분기별 통계치는 농림수산업이 전년 동기 대비 28.6%, 30.0%, 38.1%씩 증가한 데 비해, 제조업은 9.1%, 7.8%, 3.8%씩, 그리고 건설업은 13.0%, 0.9%, 3.1%씩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EU 가입의 직접적인 효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지만, EU 가입 이후 상품 수출입 규모가 보다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참조). 특히 식품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상품수입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투자수요 증가와 연계된 기계류 및 운송장비 수입도 증가세를 보여 상품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포린트(Forint)화 약세로 수출 가격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상품수지 개선(수출증가 및 수입억제의 효과)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2004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전후 7개월 간 월별 수출입 실적을 비교한 〈그림〉에서 보듯, 2004년 8월까지의 수출입 실적은 소강국면을 보였으나, 동년 9월 이후 교역규모가 점진적인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즉, EU 가입 이후 3~4 개월 이내에는 별 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

〈그림〉 헝가리의 월별 수출입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EIU, Country Report February 2005: Main External Indicators.

나, 기자재 및 자본재 수입수요 증가 및 수입 관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수입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관세 인하와 수입 개방이 교역증대 유발

EU 가입이 대외개방을 더욱 요구함과 동시에 무역 경쟁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헝가리의 교역실적은 고무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에서와 같이 2004년 5월 이전과 이후의 월별 수출입 증가율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지만, 동년 하반기 이후 수출입 실적의 상승 조짐은 6월, 9월에 각각 나타났다. 또한, 동년 1~9월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 유입액도 23억 유로(전년 동기: 17.5억 유로)에 달하였는데, 이는 지난 10년 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헝가리는 EU의 대외공동관세(CET) 제도¹⁾의 채택으로 공산품 수입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EU 회원국이 아닌 미국, 아시아 등지로부터 자동차 등의 수입도 증가하였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2004년 1~10월 수입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56% 증가하였고, 이중 기계류 수입이 8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실적도 2004년 1~4월의 14%에 비해 1~10월에는 45% 증가하여 수입 관세율

인하가 미 달러화 약세와 더불어 수입증대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헝가리 정부는 EU 회원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에 대한 보호무역 장벽을 철폐하였다.²⁾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2004년 1~10월 식품, 음료 및 담배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3%(자국 통화, Forint 기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는 기존 EU 15개 회원국으로부터의 식품 수입이 70% 증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비해, EU 15개 회원국으로부터의 식품 수입이 동년 1~4월에는 20% 증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중·동부 유럽의 EU 신규 회원국으로부터의 식품 수입도 실질적인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EU 가입 전후 이들 국가와의 교역 실적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나,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 체결국 가운데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보다는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 등 EU 신규 회원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헝가리도 EU 신규 회원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실적이 동기간 중 26.5%나 증가하여 수출시장 확대의 차원에서도 그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조 양 현】

1) 헝가리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따르면, EU 가입으로 헝가리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기존의 6.9%에서 3.6%로 크게 낮아짐. 또한, EU 관세규정을 적용한 결과 1,600개 품목의 관세율은 올라갔으나 5,500개 품목의 관세율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됨.

2) EU 규정(1291/200/EC)에 의해서도, 일부 농산물은 예외적으로 수입허가 및 쿼터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음.